미국, 일본 그리고 대만의 첨단산업입지/Utility조사를 다녀와서…

유 재 열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 서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입지 및 UTILITY』 용역의 일환으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초에 열흘간 미국, 일본, 대만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첨단산업입지 및 Utility 현황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이 조사단에 함께 참여했던 필자는 혼자서만 알고 있기에는 아쉬워서 통상산업 가족을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1. 들어가기

먼저 '96년 180억불 수출로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한 반도체산업의 특징을 알아보자.

반도체는 집적도가 2년마다 4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3~4년이다. 투자결정시점 이후 1~2년 이내의 단기간에 상품이 출하되어야 승부를 걸 수 있다. 일반적인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인프라스트럭처(인프라는 일본식 외래어임) 지원의 컨셉으로 접근은 곤란한데도 우리 정부의 반도체산업을 위한 용지, 용수, 전력 등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이 원활히 되지 않아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군인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는 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정책을 함께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첨단산업유치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미흡한가를 보여주고 싶어했다.

우리 일행은 총 10명으로서 산업단지관리공단과 반도체 협회, 기업으로는 LG반도체, 삼성전자, 현대전자 그리고 통산부에서는 본인과 관련 부서 사무관으로 구성되었다.

2. 미 국

텍사스에 SAS(Samsung Austin Semicondoctor)의 깃발을 꽂고

미국에서는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전자 및 주정부를 방문하고 그 후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산호세의 실리콘 밸리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장장 15시간의 비행 끝에 텍사스 오스틴에 도착한 우리는 영화 『자이언트』에서 나오는 목장과 유전, 록 허드슨, 제임스 딘, 리즈 테일러 등을 그려보았지만 이는 짧은 여정에 비해 무리한 기대였다. 우리는 오스틴의 상공회의소와 시청 그리고 삼성 오스틴반도체 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왜 미국으로 진출하였는가?

국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현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 중 사업하기에는 어디가 더 나은가? 이성환 사

장은 그래도 한국이 낫다고 한다. 미국으로의 진출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덤핑문제 해소, 신경영기법의 체득 등을 위해 진출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엄격한 법 집행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힘이 든다. 예를 들면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면 미국에서는 그 기업은 끝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융통성(?)이 있고 인력관리면에서도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쉽다. 언어, 풍습이 다른 외국인을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일인가? 영어보다는 한국말을 하는 것이 쉽다. 기타 외국에서의 생활 또한 얼마나 문화적인 Shock가 큰가?

삼성오스틴반도체의 이성환 사장은 해외진출의 의의를 두고 "반덤핑관세 부과 등 통상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해외경영에서 선진 경영, 생산의 Know-how를 배울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고국 기업의 세계화에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고국의 산업공동화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떳떳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오스틴은 Work Spirit가 강한 도시로서 노동의 권리와 노동운동의 권리가 함께 공존하면서 일할 권리를 더 존중하는 풍토라고 한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지만, 노동조합 설립 자체는 조합의 자유라는 것이다. 우리가 방문한 공장으로 향하는 길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 두 길 중에서 한쪽은 노동조합이 출입하는 길, 나머지 한쪽은 비 노동조합원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유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경우 노동조합용 길을 연장하여 뒷출입문으로 통하게 하여 비 노조원과의 출입자체를 다르게 함으로써 상호 마찰을 사전에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현지에서 채용한 미국인이 제안해서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나. 삼성은 넓은 미국 땅 안에서 왜 텍사스 오스틴시에 부지를 잡았는가?

고급 인력의 채용이 용이해야 한다. 장비 조달 및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기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부지를 선정하는 3가지 요건이다.

Austin에는 공대가 유명한 University of Texas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많지는 않지만 전자업체가 인근에 있다. 따라서 전자산업 인력의 채용이 용이하고 이들이 移職을 하는 경우에도 재취업이 용이하므로 회사 지원자들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 또 전자업체가 모여 있으므로 제조장비의 조달 및 보수가 용이하다.

삼성반도체 공장유치를 위해서 미국내 6개 주 20개 도시가 후보지 유치경쟁을 벌였다고 한다. 삼성측은 오레곤, 달라스, 오스틴, 포틀랜드 등을 좋은 입지로 보고 있었는데 20개 도시 입지여건의 손익계산을 해 본 결과, 10년간 투자비용이 40억불±2억불로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전임 市長이면서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유치 책임을 맡고 있는 Graeber Simmons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각 후보지 유치당국은 주 법률이 위임하거나 주별로 각기 다른 여건을 이용하여 손익계산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즉 지원 또는 인센티브가 있는 반면 그에 따르는 기업의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손해보는 장사는 안한다는 것으로 오클라호마, 네브라스카 등 20개 후보지 중 부지를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곳이 있었는데 종합 평가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부지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즉 Utility의 지원과 세금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혜택은 고급 인력수급 등 다른 요소를 포함해서 비교해 본 결과, 결정적인 입지 선정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삼성은 고급인력의 수급과 인근의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오스틴으로 정했다고 한다.

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오스틴시의 경우에는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전폭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던데 사실인가?

결과부터 말하면 삼성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한 만큼 지역사회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공회의소 유치담당자들과 시청의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오스틴의 경우는 기업유치를 맡은 상공회의소가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기업에 유치조건을 제시한다. 그리고 일단 유치가 결정되면 시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한다. 시는 주가 부

여한 법률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갖가지 다양한 시 차원의 지원 수단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원 방안을 도모하는데 이때 기업이 반대 급부로 지역에 기여하는 산출물과 비교 평가하여 결정한다. 삼성은 직원과 주민자녀를 위한 유치원을 설립하고, 반도체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400명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2000년경에 약 3000명의 고용인력 창출 등 일반 고용조건과 교육 고용조건 등을 제시한다. 반면에 시는 각종 세금 인센티브와 3000명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확장을 약속하였다. 시청이 전력회사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장까지의 전선 인입선을 전력회사가 부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용수도 마찬가지였는데 공업용수관로 부담을 수도회사가 하기로 하였다. 다만 가스는 지원의 수단이 될 수 없었는데 이는 가스회사는 민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가스공급은 가스회사간의 경쟁을 통해서 지원 방안이 결정되었다.

우리나라도 통산부, KOTRA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열심이다. 미국도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기업유치를 한다. 이는 다음 선거 등을 의식해서 더 그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선거직 지자체장이 가장 열성적일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현재보다 더 경쟁적으로 일어나도록 제도의 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는 세금 인센티브를 개발하되 국세보다는 지방세의 세금유인책 등을 지자체에 부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라. 만약에 삼성이 시에서 떨어져서 땅값이 싼 곳에 공장을 건설해도 동일한 지원을 할 것인가?

우리가 출장을 간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였다. 시청관료가 우리에게 말해준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잠시 돌아가자. 이 질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공장이 위치해야 하는데 현재는 수도권에서는 공장증설은 억제되고, 기존 공단 등으로는 수용할 능력이 없다. 각 반도체 회사는 각자 결정한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싶은 것이다. 결국 땅값이 싸면서 수도권에 위치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전력, 공업용수, 도로 등 인프라스트럭처가 정비되지 않은 곳이다. 이쯤해서 기업은 아우성친다. 이렇게 중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외국은 부지를 거의 공짜로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면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단지공단 등의 반대입장은 이러하다. 왜 기존 공단을 놔두고 하필이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는가? 기존 공단이라든가 부지가 좀 비싸도 산업하부시설이 잘 정비된 곳으로 가라는 것이다.

마. 시청과 삼성에서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았다

공사와 관련하여 1주일에 한 번씩 시청의 인허가 및 공사 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법, 건축법 등에 근거한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합격이 되면 현장에서 삼성에 바로 결정 통보한다. 일명 Fast Track제도로서 공사허가기간이 일반적인 경우 160일이 소요되나 동 제도로는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여 인허가를 받고,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비해 미국은 공사진행중에 단계별로 준 인허가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사준공전에 공장가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우리와 비슷하기는 하나 융통성과 재량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걸까?

미국에서의 공사는 광대한 황무지를 개발한다는 개념인 반면에, 우리는 좁은 국토로 인하여 모든 땅을 용도를 정하여 지역별로 나누어 놓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것은 금지로부터 시작되어 허가를 통해 완화된다. 미국은 모든 것이 자유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것을 금지로부터 시작하는데 규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차이에서부터 사회문화적 차이까지를 논의하였다. 그곳은 공무원이 프로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고, 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하도록 권한

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달로 인해서 투명한 행정과 선거를 의식해서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다. 텍사스의 TV채널 중의 하나는 하루 종일 시 행정과 관련된 각종 회의, 공청회 등을 방송하고, 개인 또는 단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단다.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적 사고는 맑은 샘물과 같은 사회적 환경하에서 생기지 않을까 싶었다.

이러한 토론과정에서 의견이 둘로 나뉘어졌다. 한쪽은 그들의 그러한 합리적 정신을 배우자는 것이고, 다른 한쪽의 의견으로는 양국간 국토, 사회적 시스템,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큰 탓에 이러한 이질적 문화를 그냥 놔두고서 합리적 정신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으로서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렇듯 시끄러운 토론 때문에 숙소로 돌아오는 미니버스에서 눈을 붙이고 부족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머리에 꽃을 꽂고

게이들의 천국, 미국 서부의 관문, 실리콘 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 KOTRA에 파견나와 있는 박용찬 과장이 마중을 나왔다. 여행사에서 실수로 마중을 나오지 않았지만 다행히 박과장의 안내를 받아서 무사히 숙소로 갈 수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게이들의 집에서 무지개 무늬 깃발들이 자유의 상징처럼 나부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동부 뉴욕시에서는 자유의 여신상에서 자유의 횃불이 나부끼더니, 서부 끝으로 와서는 게이들의 상징으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게이도 남자 게이와 같이 산단다. 우리는 점심으로 랍스터를 먹으러 바닷가로 향하였다. Golden Gate를 향해 가는데 그 灣의 한가운데에 섬이 떠있었다. 전에는 교도소로 쓰였던 곳. 유명한 알 카포네가 그 마지막을 보낸 곳. 삼성전자 김광호 회장도 들른다는 싸구려 바닷가 선술집을 찾았다. 물에 삶은 랍스터와 게를 사 들고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내 책상 앞에도 붙여놓은 적이 있는 동경의 대상인 실리콘밸리 땁. 그렇게 궁금하였던 실리콘 밸리로 향했다. 산호세 시청 경제부관리를 만났다. 전체 부지는 2억 7천만 평이었다. 우리는 몇 번을 계산을 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활한 면적이었다. 이 곳이 전자산업의 메카로 성장한 이유는 산호세의 배후에 스텐포드대학이 있고, 여러 전자업체로 인한 이취업이 용이하고 기후가 따뜻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업체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부지 값이 올라서 종사자는 외곽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한단다. 따라서 교통체증으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데 정말로 우리는 저녁 이동 때 트래픽잼에 걸리고 말았다.

우리나라 같으면 최첨단 산업단지에 손실이 크므로 정부에 대해 이를 해결해달라고 할텐데 그런 요구가 없는가?

산호세 시청 관료 Joseph R. Hedges가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요구한 기업은 없었다고 한다. 시청에서 알아서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도로를 넓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도로를 확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예산이 부족하여 최근에 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보내 왔다고 한다.

지자체가 정착되지 않은 중앙집중적 권력체제하에서 모든 것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예산 부족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는 우리 사회와는 달리 원인자부담 원칙이 상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원인자인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통하는 사회였다.

우리는 시청에서의 만남을 끝내고 실리콘 밸리 투어를 하기로 하였다.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 전자회사의 간판을 보니 반가왔다. 대부분이 반도체 판매법인들이었고, 현대가 일부 연구법인을 겸하고 있었다. 국내 중소기업이 더 많이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에 띄지가 않았다. 인텔 본사를 스쳐 지나갔다. 펜티엄칩, intel inside, 앤디글로브회장… 등등이 떠올랐다. 하루는 글로브회장이

늦게 출근을 했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왜냐 하면 회장 전용 주차공간이 없어서…. 역시 미국이었다.

저녁에 현지 분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화제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무역적자,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한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현대전자 유국상 상무가 그 중 중요한 성장요인은 유연성이라는 어느 보고서를 인용했다. 금융의 유연성, 기업의 퇴출과 진입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현실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공단의 노성호박사가 반박했다. 미국 경제가 어려웠을 당시에도 유연성이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데 또 시끄러웠다.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다.

대마도는 일본 땅, 하와이도 일본 땅

일본으로 향하는데 중간 기착지로 하와이에 도착했다. 알로~하(안녕) 정도는 알고 가야지. 내리니까 한국 남자 가이드가 마중을 나왔다. 우리는 영화에서 보던대로 오키드로 만든 꽃목걸이를 하나씩 받았다. 다만 남자 가이드가 자기가 가져온 비닐백에서 여러 개를 꺼내어서 한사람씩 나누어주고 각자 자기 손으로 목에 걸었다. 하와이의 상징문양은 무지개다. 흰 바탕의 차량번호판에 무지개가 부채살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게이의 상징인 무지개가 태평양 한 가운데에 와서는 하와이의 상징이 되었다.

하와이에 대한 첫인상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슷하거나 더 낫다는 느낌이었다. 저녁에 쉐라톤 서핑보드호텔 라운지에 칵테일을 마시러 갔다. 바닷가 은은한 달빛 아래 피아노 선율은 흐르고 칵테일 잔 안에서 파도는 부서졌다. 실내 수영장 한 쪽에서는 간이 철판구이 냄새가 맛갈스러웠다.

전에 프랑스 남부 니스바닷가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휴가를 보내기에는 하와이가 더 나아 보였다. 대마도는 일본 땅, 하와이는 미국 땅이라고 불렀던 노래를 이제는 바꾸어야 할게다. 대마도는 일본 땅, 하와이도 일본 땅. 일본사람은 이 땅의 주인이었다. 대법관, 경찰이 일본인이고 이 섬의 60%가 일본인 소유다. 여기서 미국 사람은 삐끼였다.

가이드가 얼마전에 삐기에게 홀려서 망신당한 한국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들 다섯 명이 늘씬한 미녀를 따라 그녀의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죽도록 맞고 여권과 돈을 빼앗기고, 윗도리와 런닝셔츠까지 벗기고서 쫓겨났다고 한다. 들어가자마자 흑인 한명이 권총을 들이대고 패기 시작했는데, 5명인데도 어찌할 수 없어 다 벗기우고, 여권과 돈을 다 털렸다고 한다. 한국인 여권은 3, 4천불에 암거래된다고 한다. 비슷한 경우를 한국 깡패들 3명도 똑같이 당했다니 권총앞에는 천하의 막가파도 소용없나보다.

밤에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다. 내일 아침 출발이다. 시간이 아까와서 우리는 10시에 바닷가로 몰려갔다. 잠시 해수욕을 하고 길로 나오니까 배꼽티에 핫팬티를 입은 삐끼들과 젊은 일본인 천지였다.

3. 일 본

電子帝國 Nippon

다음날 우리는 일본 나리따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청사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미국은 담배를 피울 수 없는 나라다. 그렇게 자유가 많은 나라가 그런 자유를 제한하다니… 대단한 나라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강한 금연제재가 가능할까 생각해 보았다. 담배인삼공사가 공기관이고 세수가 줄어들므로 금연제재가 더욱 어려운 결정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점이 어쩜 더 강력한 금연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공급자는 로비가 강한 사기업이어서 금연제재가 어려웠다. 미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와 국가가 금연을 추진하였으나, 우리는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금연을 결정하면 결행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일본의 첫 인상은 차창 밖에 보이는 풍경이 우리나라와 흡사하다는 느낌이었다. 몇 년후 한국의 모습이 이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통산성과의 약속을 주선한 대사관의 박천진 과장과 함께 통상산업성 환경입지국과 地域振興整備公團(우리나라의 산업단지공단에 해당)을 방문했다. 일본의 첨단산업입지정책은 '83년 테크노폴리스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단다. 산업 학술공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조성추진하고, 지역에 첨단기술도입과 기존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촉진시켜 기술을 핵으로 지역경제의 자립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통산성 환경입지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26개 단지가 조성되어 자금과 세금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세부 관련사항은 공단의 출장보고서 『첨단산업입지/유틸리티 실태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에너지관련사항은 담당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국제 자료 구입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

통산성 바로 옆길에 있는 정부간행물센터에 갔다. 눈에 뜨이는 책이 있었다. 자원에너지청이 발간한 자원에너지 六法, 통상산업성이 발간한 通産六法. 시행령까지 나오는 관련법 모음집이었다. 사건사고가 터질 때만 일본에 연락해서 무슨 내용 보내라고 하는 것이 싫어서 사기로 했다. 좀 비쌌다. 通産六法이 1만엔(8만원).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부 자료실에는 그런 도서를 사기 위한 예산은 없다고 한다. 어차피 개인적으로 갖고 싶었던 책이었으니까. 지금 그 책은 사무실 내 책상 머리에 놓여 있다. 다음 공식을 생각해 보면 이 책이 유용하리라고 생각해 본다.

우리가 필요한 정책아이디어나 법령(안)

=일본 통산 육법-우리 통산부 관련 법령

OECD의 Network인 OLIS를 헤매어도 제대로 된 자료는 없구나. 그래서 인터넷의 OECD홈페이지를 뒤져본다. 결정적인 통계에 접근하는 순간 有料Publish 메뉴로 간다. 돈내고 사서 보라는 것이다.

다음 날 우리나라의 서울시청에 해당되는 도쿄도청을 구경하러 갔다. 몇 년전 새로 지어 도쿄의 명물로 자리잡은 도쿄도청. 도청의 내부 천장과 벽, 엘리베이터는 같은 문양으로 바로 IC 칩과 리드선을 형상화한 디자인이었다. 전자산업에 대한 일본인의 불타는 정열을 읽을 수 있었다.

아키아바라에 갔다. 면적은 잘 모르겠으나, 상점이 연이은 大路의 길이는 우리나라의 용산전자상가와 비슷하다는 느낌이었다. 냉장고, TV 등의 가전제품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Cellular Phone,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정보, 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외제 전자제품으로는 면도기, 순간 체온측정기 등이 있었다. 공항면세점 등과 비교하여 가격이 싼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 아기를 위해 체온을 1초에 측정하는 순간 디지털체온계를 샀다.

삼성전자의 홍순섭부장이 외교적으로 말썽 많은 야스꾸니신사를 가자고 했다. 그 현장을 보아야지 克日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거들었다.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 해당되는 그 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사자의 위패가 있다. 우리가 갔을 때 신사 옆에 간이 전시장이 연간 개장되어 있었다. 전장의 그림과 가미가제의 각종 장비가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가미가제가 비행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뢰를 타고 적함에 돌진하는 가미가제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은 일본戰犯(그들에게는 聖戰,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과 그 후에 죽은 일본여성과의 영혼 결혼이 유행이라고 한다.

4. 대 만

大企業도 육성하는 대만

마지막 목적지인 대만으로 향했다. 타이페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대만인들은 우리나라 청량리발 3등 야간열차칸 안에서 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저희들끼리 술을 권하고 이야기를 하고 떠든다. 우리만 빼고 전부 대만인 여행객으로 보였다.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에 도착했다.

대만의 첫인상은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더웠다.

우리가 숙소에 도착하자 대사관에서 나온 백두옥 과장

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나는 일행 중 몇 사람과 함께 저녁에 夜市場엘 갔다. 비릿한 냄새에 절어있는 지저분한 상가에서 뱀, 새, 강아지, 장난감, 차, 다도, 옷 등을 팔고 있다. 우리나라 성남의 모란시장처럼 보였다. 우리가 뱀탕 가게 앞을 지나갔다. 문앞에 나와 있던 대만 상점 점원이 귀에 익은 한국말로 "뱀탕이요, 뱀탕"이라고 호객을 했다. 우리나라 사람의 정력은 가장 먼저 국제화, 세계화된 부문일 것이다.

한참을 구경하고 좀 깨끗해 보이는 해물집을 들어갔다. 중국집이었다. 여긴 모두 다 중국집이다. 우리는 진열장에 있는 해물을 보고 손가락으로 주문을 했다. 그리고 술을 주문하는데 메뉴에는 없었다. 竹葉淸酒를 시키기로 했다. 竹이라고 쓰는 순간, 종업원 아가씨는 알았다고 더 이상 筆談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갔다.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술을 내왔다.

다음 날 우리는 백두옥 과장의 안내로 경제부 공업국을 방문하였다. 대만은 컴퓨터부품과 주변기기의 세계시장 점유 1위. 이제는 석유화학단지 조성과 반도체 제조를 시작하였다. '94년에 시작한 반도체. 미국, 일본, 한국이 석권하고 있는 반도체를 이제는 대만도 생산한단다. 그리고 화학공장도 세운다고 한다. 왜냐 하면 전자부품의 기초소재인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진정한 전자산업을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의 지원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 무한정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섬뜩한 느낌을 느꼈다. 외환보유대국에 걸맞는 경제대국의 힘을 느꼈다.

가. 대만도 자본집약적인 대규모 투자기업을 육성하는가?

흔히들 한국 경제성장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제한된 생산요소를 제조업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여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중소기업보다는 소수의 능력있는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왔다. 오늘날 산업의 不均衡 성장, 富의 偏在라는 業報를 안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으로 오늘날 한국이 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반면에 대만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중소기업이 산업의 기축을 이루어 왔다고 이야기해 왔다. 이러한 대만의 기업문화 측면에서 볼 때 대만에서는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반도체 등 한국식의 대규모 투자산업은 안된다고 학자들은 논문에서 써내려 갔었다. 그리고 각종 산업정책보고서의 基底를 이루어 왔다.

이제 그러한 論調의 글은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대만이 중소기업 육성으로 축적한 역량으로 반도체와 화학산업을 한다고 한다. 혼돈에 빠졌다. 세계적인 반도체저널인 DATA QUEST에서는 세계의 반도체 시장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면 공급과잉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부문에서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만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대만의 투자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유도 질문을 하였다. 우리는 경제부관리로부터 대만의 반도체투자는 정책적 실수라는 한마디를 듣고 自慰하고 싶었다. 그러나 경제부관리는 한마디로 넌센스라는 것이다. 대만의 컴퓨터 시장이 성장하는 한 반도체시장은 커갈 것이고, 세계시장도 그렇다고 본단다. 가격 경쟁력은 걱정말란다. 우리는 이를 눈으로 확인하기로 하였다.

다음 날 우리는 新竹 科學工業園區를 방문했다. 대만은 促進産業支援法을 제정하여 통신, 전자공업, 반도체, 정밀기기 및 자동화, 항공, 고급재료, 특용화학품, 의료보건 및 오염방지 등 10개 업종군을 집중지원하고 있었다. 동 단지는 '79년 설치관리법에 따라 조성된 6개 특별 첨단산업단지 중의 하나였다.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부지는 분양이 아니라 장기 저가 임대로서 거의 공짜에 가까웠다. 전략적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공단측이 모든 건축 인허가를 직접 처리한다고 했다.

나. 우리의 대덕과학단지와 차이가 있었다

대덕에는 연구소가 중심이고 교육기관으로 KIST가 있다. 新竹에는 청화대학, 교통대학이 단지 안에 있었고,

그에 더하여 굴뚝없는 공장이 있었다. 우리는 연구소 중심이고, 대만은 이에 추가하여 제조업체를 함께 유치하였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도 기업과 텍사스유니버시티가 함께 있었고, 실리콘 밸리도 연구와 생산을 함께 하면서 배후에 스텐포드가 버티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 생산은 주로 산업공단에 위치해 있고 연구는 대학 또는 기업의 연구소가 하게 되어있어 연구와 생산의 고리가 약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와 생산을 동일 구역 안에서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동일 업종을 한 곳에 묶어 놓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외국과 같은 시너지효과가 일어날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재벌기업간의 경쟁 의식으로 인해서 같은 지역에 동일 업종이 있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은 이직이 훈장처럼 되어 있다. 실력이 있어 그 만큼 본인의 상품가치가 높아서 높은 가격으로 자신을 파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배신자로 또는 부적응자로 경시된다. 이러한 기업 문화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인력 시장에서의 유연성의 시너지효과보다는 평생 직장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밖에 없다. 여하튼 공단과 연구단지내에 생산과 연구를 연계하는 점은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다.

다. 대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반도체 판매 지사장들과 함께 저녁을 하였다. 주제가 중국요리보다 맛있는 안주였다. 삼성 반도체 지사장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대만인은 남에 대한 의심이 많다. 따라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이 기업의 중심이다. 부인도 직장을 갖고 있으며 다른 NICS국가의 경우와 같이 여자의 취업률이 대단히 높고, 가정에서 부인의 입김이 세다. 대만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여자들의 참여가 높기 때문으로 한국남자 1명이 벌어야 하는 돈을 대만은 부부 둘이서 나누어서 버니까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만은 기후가 온난하고, 이모작이 가능하여 먹을 것이 풍부하다. 따라서 식당이 발달되어 있어 그 수가 많고 음식값이 싸다. 아침은 대충 때우거나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사먹는 스낵이 발달해 있어, 사가지고 직장에 가서 먹거나 한다. 점심도 사먹고 저녁은 가족단위로 푸짐하게 외식하는 경우가 많다. 대만인들은 이렇게 소규모로 가족 중심의 기업을 하다 보니까 유연성과 무한책임으로 인한 강점이 있는 반면에 그 이상의 종업원이 생기면 기업경영의 기법이 없어서 대단히 애를 먹는다고 한다. 그들은 의심이 많기는 하나 합작정신이 강하여 한 번 외국과 합작을 하면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대만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합작을 하라고 한다. 대만의 전자업체 그리고 신죽공단에 입주한 반도체기업도 대부분이 합작이었다.

그리고 법의 자의적 집행이다. 기업이 잘하는 경우는 좀 어렵더라도, 탈세를 하더라도 봐준다. 그러나 기업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않으면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인이 열심히 하면 잘 살게 해주며 기업을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기업가 정신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기업인을 존중한다. 또 외국의 노동 인력을 활용한다. 대만도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노동은 다른 동남아 국가의 노동력을 수입해서 쓴다. 반면에 대만인은 고급 업종에 종사한다.

라. 대만과 중국은 어떤 관계인가?

대만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三不政策(통신, 왕래, 통상)을 버린지 오래다. 그리고 홍콩이 반환되고 정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의 가장 큰 외국 투자는 바로 본토이다.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다는 것이 가장 큰 투자여건이다. 그러면서 대만인은 우리나라에 충고한다. 대만이 중국 본토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왜 남한은 북한 인력을 활용하지 않는가?

마. 대만도 독재체제에서 민주화하는데는 민주화 비용을 치르면서 경제가 주춤거릴 것 아닌가?

답은 No다. 대만인은 정치보다는 경제에 관심이 많다.

국민당 자체가 재산이 많고 국민당이 기업을 갖고 금융지원을 한다. 그렇다면 정경유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경제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기업은 하기 어려워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왜 대만은 그러하지 아니한가? 숙제가 또 생겼다.

바. 왜 대만은 지저분하게 사는가?

대만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외환보유고도 많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제품에서 1등하는 상품이 있다. 그런데 사는 집은 한심하다. 대만은 본토와 언젠가는 합칠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본토로 가는 날을 생각해서 잘 해놓고 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전세에 살더라도 어느 정도 문화적 생활을 누리면서 살지 않는가? 대만사람은 일생에 두 번 크게 돈을 써야 한다고 한다. 한 번은 결혼할 때 살 집을 장만하거나, 신부가 돈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보내서 신접살림살이를 사오도록 한다. 그 비용이 신랑몫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 가족들이 점을 본 후에 점장이가 정한 날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 그래야 가족과 후세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며칠 만에 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행복한 경우고, 길게는 서너 달씩 걸려 장례를 치르는데다가 이때는 전문적인 사람을 사서 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점장이의 말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회다.

5. 뒷풀이

가.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가?

전반적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다른 산업보다 우선하되 세금 등의 인센티브를 통한 차별적 지원이 있었고, Utility의 경우 사업주체가 국영, 민영에 따라 다르고 용지, 용수, 전력 등 종류에 따라 지원내용이 각기 상이하였다. 전반적인 지원내용은 미국은 주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오스틴의 경우는 삼성에 한해서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실리콘 밸리의 경우는 기업별 차등지원 혜택이 없었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이 동일한 척도로 지원이 되고 있었다. 원인자 비용부담원칙, 비용/효용원칙이 지원컨셉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삼성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 산출물이 많았기 때문에 오스틴시도 삼성에 대해 혜택의 폭이 컸다. 다른 유치기업의 경우에는 삼성에 준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는 고용 및 교육효과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 전력에 관한 각국의 사례를 보고 들은 바는 다음과 같았다

전기요금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일본, 대만보다 저렴했다. 배전선로의 설치는 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기본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하에 수용가 부담으로 되어 있다. 다만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지원 시책상 Utility 설치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나 이 경우에 더 많은 반대 급부를 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도 전력사업을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한전의 전국 독점하에서 그러한 융통성을 발휘하여 어떤 기업, 어떤 지역, 어떤 산업을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자칫 특혜의 소지가 있고 누구나가 그러한 요구를 할 것이다. 더구나 재벌들이 하는 반도체산업이라는 특별한 산업을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전기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차보조측면에서 볼 때 전기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히 Utility 지원만을 각국별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로 보였다. 그리고 공단의 전력간선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력설비 지원이 경쟁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았다고 보였다. 간접투자설비인 전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숙제도 많이 풀었다. 그리고 또 숙제가 많아졌다. ■